총선 D-6 '르포' - 해남·진도·완도 가 보니

"지역 출신 뽑아야죠" "젊은 인물 밀어줘야"

해남 민주 민화식·완도 무소속 김영록 선호

소지역주의 강해 진도 표가 캐스팅보트

해남·진도·완도 선거구는 이번 18대 총선에서 새로 생긴 선거구다. 기존 해남·진도 선거구에 완도를 붙인 형세. 지역구 대부분이 섬 지역인 탓에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얼굴을 마주하기 힘든, 그런 만큼 타지역 사람에게 쉽게 맘을 주지 않는 배타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런 지정학적인 특징은 1~2일 이틀간 둘러본 해남~완도~진도에서 여실히 읽혀졌다. 해남에선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에게 신뢰를 보내고, 완도에서는 무소속 김영록 후보에게 눈길을 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소지역주의 성향의 투표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할 진도의 경우 노년층은 전통적 민주당 정서를 자극하는 민 후보를, 청장년층은 지역발전 인물론을 강조하는 김 후보에 맘이 쏠려있었다.

'5일 장'이 열린 지난 1일 오전 해남군 해남읍 매일 시장. 선거운동원들이 삼삼오오 지지를 호소하고 지나간 길목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아이고, 물어 보지도 마씨요, 선거 얘기만 하면 신물이 나요."

호프집을 하는 이모(53)씨는 "지난해 박희현 전 군수에게 금품을 받은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는 바람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 둘이냐"며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주민들은 속내를 끝까지 숨기진 않았다.

이 곳에서 30년간 과일가게를 한 오모(여·60)씨는 "민화식 후보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만, 김영록 후보도 인물은 야물다고 들었다"면서 "그래도 해남사람인 민 후보를 뽑아야지 누굴 뽑겠냐"고 말했다.

강모(62)씨는 "민 후보가 임기 도중 군수 자리를 내놓고 도지사에 출마하기도 했지만, 군정 만큼은 잘 이끌었다"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민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완도의 분위기는 판이했다. 무소속 김영록 후보에 대한 기대가 컸다. 모처럼 능력있고, 젊은 지역출신 인물이 출마했다며 반드시 밀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했다.

완도읍 군내리 신모(44)씨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김 후보가 젊고 파워가 있어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도군민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렸다. '젊은 인물론'과 '견제세력 민주당 밀어주기 론'이 맞부딪쳤다. 진도군 지도면 박모(33)씨는 "이제껏 (민주당 후보를) 밀어줘도 되는게 없더라"며 "요번에 무소속이지만 행정경험도 많고 능력있는 김 후보를 찍어 덕 좀 봤으면 싶다"며 '지역발전론'에 방점을 찍었다. 최모(67)씨는 "그래도 민주당 아니냐. 민 후보를 찍어서 한나라당을 견제해야 한다"고 '견제론'에 힘을 실었다.

이번 4·9총선의 유권자는 해남 6만6천860명, 완도 4만6천134명, 진도 2만8천878명이다.

/해남·완도·진도=정은조·박현영·박진표기자

ejchung@kwangju.co.kr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남·진도·완도 선거구의 각 후보 진영은 막판 표심 다지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사진 왼쪽〉와 무소속 김영록 후보가 지난 1일 진도와 해남지역에서 각각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 "당 지지율을 높여라"

전국구 의석 15석 확보 안간힘

통합민주당이 4·9 총선 전국구 의석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연일 '거여(巨與) 견제론'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정작 당 지지율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정체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현재 민주당 지지율은 15% 안팎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4.5%를 기록해 한나라당의 42.1%에 크게 못 미쳤고, 비슷한 기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조사에서도 15.3%였다. 최근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 40%, 민주당 14%로 집계됐다.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는 가능한 비례대표 확보 의석수가 10개 초반 이상을 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돌고 있다.

'텃밭'인 호남을 비롯,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점쳐지는 강세지역을 일차 타깃으로 해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평균 당 지지율을 높이는데 주력키로 했다. 박선숙 총선기획단 부단장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非)호남권에서 강세 및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약 78곳의 경우 정당 지지율도 평균 25~28%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정당 지지를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 호남 끌어안기 나서

강대표 3~4일 광주·전남 유세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선에서의 최대 취약지인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 끌어안기에 나선다.

한나라당 광주시·전남도당은 2일 "강재섭 대표가 3~4일 이틀간 광주와 전남에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당 불모지인 호남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를 밀어줄 것을 지역민들에게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강 대표는 3일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에서 정용화 후보 등 한나라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한 뒤 4일 나주·화순 지역으로 옮겨 김창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또 원희룡 의원과 김덕룡 당 공동선대위원장도 각각 4일과 5일 나주·화순 지역을 찾아 지역민들에게 나주 혁신도시의 조기 완성을 위해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호남 홀대인사, 현안사업 축소 우려 등으로 지역사회의 위기 의식이 커지면서 한나라당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상황인 만큼 당 지도부가 어떻게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변화 기대했는데 …"

광주·전남 한나라당 후보들

유권자 냉담에 "울고 싶어라"

4·9 총선이 종반전에 돌입했지만 한나라당 후보들은 울고 싶은 심정이다.

"민주당의 호남 싹쓸이는 안 된다"며 목이 터져라 외치고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녀도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은 아직 냉담하기 때문이다.

2일 광주에서 만난 한나라당 모 후보측 관계자는 "이제는 한나라당에 대한 지역 유권자의 인식이 좀 바뀌나 기대했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제 호남도 민주당 일색에서 탈피해야 하며 그 변화의 시작은 유권자들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중앙당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 '무늬만 호남'인 인사들을 상위 순번에 올리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발걸음도 무거워지고 있다.

광주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 측 인사는 "도대체 한나라당 지도부가 호남 공략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후보들도 더욱 열심히 할 것 아니냐"며 비례대표 선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인지도 높은 거물급이 나서지 않은 점이 한나라당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최모(42)씨는 "내 지역구에 나서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인지도 높은 거물급이 한나라당 간판으로 출전해야 관심을 끌게 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전남 나주·화순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창호 후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당장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들이 뿌린 피와 땀과 눈물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이번 총선 평균 득표율은 7~9%로 과거보다 2~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MB정부 '호남 배제론' 인사에 실망

주민들 "한, 진정성 보여야 표 주지"

광주·전남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서도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힘겨운 선거전을 치르는 원인은 복합적이다.

지난 대선 직후만 해도 한나라당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선전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 및 내각 구성 등에서 '호남 배제론'이 확산되면서 지역 민심은 과거로 회귀했다는 평이다.

이날 광주 남구에서 한나라당 후보측의 거리 유세를 지켜보던 김모(48)씨는 "이명박 정부의 영남 편향 내각 구성과 초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으며 곁에 있던 이모(42)씨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지지를 해줄 것 아니냐"며 냉소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 갑에 출마한 정용화 후보는 "장관급 인사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지만 차관급 인사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호남에 대한 배려 측면도 강하다"며